4차 산업혁명의 언어 <사물인터넷 IoT>

■ 학습 목표

사물인터넷의 의미와 활용방안을 안다

■ 강의 정리

1. 사물 인터넷 IoT(Internet of Things)이란?

1999년 첫 등장 이후, 이미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기술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서로 소통하게 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 (1999년 메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오토아이디센터소장 케빈 애시턴이 처음 사용)

2. 사물 인터넷의 활용 사례

1) 센싱 데이터를 통해 제품 상태, 외부 환경 변화 알림
(ex. 물이 부족하면 알아서 '물이 부족하다'며 깜박이는 정수기)
2) 스마트 폰으로 제품이나 이용자의 환경을 제어
(ex. 보일러를 켜 두고 나왔을 때, 폰으로 보일러 전원OFF)
3) 사람의 개입은 최대한 줄이고, 사물끼리 알아서 정보를 주고받아 처리
(ex. 냉장고-TV-에어컨 등 가전제품끼리 연결)
4) 도시끼리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날씨, 교통, 공기 등 데이터 교환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효율적 생활을 위해 최적의 상태 제공 (ex. 스마트시티)

※4차 산업혁명은 사람과 사물 모든 것이 연결된 **초연결 사회**이며, 초연결 사회의 구현을 위한 필수 기술이 바로 **사물인터넷**이다.